第291回國會
(臨時會)

國際競技大會開催및誘致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6月28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
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

審査된案件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김진표・임영호・유성엽・강창일・김성곤・노영민・홍재형・변재일・송광호・이용희 의원 발의) ····· 2
2.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김효석・김재윤・김성곤・김춘진・박은수・최철국・유성엽・우제창・서갑원・박기춘・이윤석・김우남・변재일・김진표・박선영・박선숙・조경태・서종표・최규성・오제세・전현희・조배숙・임영호・박순자・유원일・이용경・권영길・김동성・박주선・김동철・송영길・원혜영・김정권・한선교・김태원・손숙미・정양석・나성린・이용섭・최문순・조영택・박상은・이춘석・권영진・김성태・강창일・유기준・강기갑・신학용・송훈석・박준선・조전혁・김소남・김영록・안민석・최재성・김희철・이미경・이용삼・박영선・천정배・김부겸・강성종・이성남・이종걸・김상희・노영민・강기정・이인기・김재균・주승용・정병국・우윤근・강운태・안규백・최영희・백재현・김세연・전혜숙・홍재형・이낙연・문희상・이시종・이석현・최인기・문학진・김성순・박지원・추미애・장세환・황우여・최규식・김유정・백원우・송민순・전병헌・홍영표・정장선 의원 발의) ····· 2
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김재균・김영진・강기정・조영택・이용섭・이명규・배영식・홍사덕・서상기・김효재・김금래・이해봉・이한구・윤상현・최구식・성윤환・홍일표・안형환・진성호・송훈석・허원제・주성영・이학재・조전혁・김을동 의원 발의) ····· 2
4.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이계진・박병석・류근찬・노철래・송훈석・유성엽・최연희 의원 외 277인 발의) ····· 2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 새로이 보임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 출신 민주당 노영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에 왔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위원 민주당 최문순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야여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좀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해녕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관계로, 정우택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또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은 멕시코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연택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슬로건 지정을 위해서 이미 예정된 전문가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11시 이후에는 이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이시종·김진표·임영호·유성엽·강창일·김성곤·노영민·홍재형·변재일·송광호·이용희 의원 발의)
2.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양승조·김효석·김재윤·김성곤·김춘진·박은수·최철국·유성엽·우제창·서갑원·박기춘·이윤석·김우남·변재일·김진표·박선영·박선숙·조경태·서종표·최규성·오제세·전현희·조배숙·임영호·박순자·유원일·이용경·권영길·김동성·박주선·김동철·송영길·원혜영·김정권·한선교·김태원·손숙미·정양석·나성린·이용섭·최문순·조영택·박상은·이춘석·권영진·김성태·강창일·유기준·강기갑·신학용·송훈석·박준선·조전혁·김소남·김영록·안민석·최재성·김희철·이미경·이용삼·박영선·천정배·김부겸·강성종·이성남·이종걸·김상희·노영민·강기정·이인기·김재균·주승용·정병국·우윤근·강운태·안규백·최영희·백재현·김세연·전혜숙·홍재형·이낙연·문희상·이시종·이석현·최인기·문학진·김성순·박지원·추미애·장세환·황우여·최규식·김유정·백원우·송민순·전병헌·홍영표·정장선 의원 발의)
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김재균·김영진·강기정·조영택·이용섭·이명규·배영식·홍사덕·서상기·김효재·김금래·이해봉·이한구·윤상현·최구식·성윤환·홍일표·안형환·진성호·송훈석·허원제·주성영·이학재·조전혁·김을동 의원 발의)
4.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이계진·박병석·류근찬·노철래·송훈석·유성엽·최연희 의원 외 277인 발의)

(10시09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추구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 스포츠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면 성장하는 국력과 문화적 정통성 및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가 발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로서 좋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2010년, 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결선투표에서 아깝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온 국민의 성원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2018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2011년 7월 6일 제123차 IOC 총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이를 온 국민의 염원으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안으로 모든 국가기관 및 민간 부분의 협조를 모아내고,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2018년 동계올림픽의 우리나라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에 관계되는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의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장소로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박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서를 봐 주시면요, 지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국회가 법률 제정 및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2002년 월드컵, 2010년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현재 평창은 2010년 6월 23일 IOC 집행위원회에서 2018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되어 공식적인 국제 홍보 활동 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결의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그런지 별다른 질의가 또 토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 동 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정부의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체육대회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경우 재정적·법적 지원의 필요성은 커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아시아게임 등 종합대회와 세계 3대 메이저대회에 대해서만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국제경기대회 유치 시마다 법률을 개정하여 추가하는 입법방식보다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하여 보고겠습니다.

제정안은 제25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대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광주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현행 대회 지원법에 제정안의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각 국제경기대회별로 독립된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은 해당 국제경기대회의 지원 특성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사례로는 현행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과 지난 2003년 대구에서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간 지원의 형평성 및 지원 추진체계의 통일성 유지와 기존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현행 대회 지원법과 다른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안에서는 대회 개최지에 대해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제정안에서는 조직위원회가 테러 및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제정안에서는 조직위원회 및 대회 관련 시설주와 조직위원회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특례의 남용 금지 등을 위하여 동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세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정안에서는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경기대회 지원 관련법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있고, 옥외광고사업이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기능을 수행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직접적인 옥외광고사업이 도시 미관 저해, 전문성 부족,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의 주체를 한국옥외광고센터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도 직접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회 지원법에서는 각 조직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체육투표권을 증량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투표권 증량발행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의 해석·적용에 논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대회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투표권 증량발행이 사감위법상 매출총량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체육투표권 증량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안설명한 외에 추가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안설명 겸 추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지역 출신 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총회에서 광주광역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29일에 기존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의 법명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가하는 통합 법 형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일단 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범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대회기간 중의 교통소통 대책이나 테러 및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배분근거 마련 또 대회 관련 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제와 조항 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치과정에서 광주광역시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2015년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남북한 단일팀 구성 추진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조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경기대회의 특성에 맞는 관련 정책의 마련과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법 형태로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와 인권, 정의의 상징인 광주광역시가 창도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인 만큼 남북 단일팀 구성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일류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파함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한 계기가 힘차게 마련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대회 준비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광주U대회에 대해서는 FISU에서도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어느 대회보다도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FISU에서 책임자가 광주를 방문했고 또 광주에서 우리 김윤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현지 방문을 해서 원활한 대회 준비와 지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발언시간은 한 7분 정도로 하고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제가 오늘 의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문체부장관님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가능하시면 나중에 자료

로 그냥 보내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종구 위원 뭐냐 하면 지금 F1 영암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종구 위원 그것 금년 몇 월에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0월에 합니다.

○이종구 위원 준비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계획대로 이달 6월 말까지 경기장 시설은 건립이 다 되는데요, 나머지 거기 관중들을 위한 숙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도 하시고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F1을 유치한 주최…… 그러니까 주최 측은 어디입니까, 그게 원래? 원래 처음에 그것 시작된 게 어떻게 해서 그 시작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주체는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도와 민간이 합작해서 만든 KAV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래서 그 KAVO가 대회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KAVO라는 회사에서 맡아 갖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종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대회의 유치를 통해서 코스트 베니핏(cost-benefit)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얻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우리 요새 SBS가 하는 월드컵 중계같이 이 중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세계 각국에 중계는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국내적으로도 이게 중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F1 그랑프리 본부에서 아마 세계에 방송 나가는 문제나 이런 건 우리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방송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도 아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F1 준비에서 지금까지 시간도 너무 짧고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지난번에 다 정리가 되면서, 어쨌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게 7년간 대회를 하는 조건으로 그 유치권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아마 올해 안에 거의 이렇게 완성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런 서비스 부분이.

그래서 올해·내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적어도 3년차 정도부터 해서 향후 7년 때까지는 아마 경제적인 B/P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올해·내년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문체부에서 하는…… 주체가 돼서 지금 F1 그것에 대해서 인볼브(involve)가 돼 있고 주도적으로 뭐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입장은.

○이종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니까요. 그것 주도적으로는 도하고 KAVO라는 같이 설립한 그 회사에서……

○이종구 위원 그것 예를 들면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 500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 국비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국비로 지원

하는 근거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경기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도 모터스포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국제경기대회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건립하는 것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요.

○이종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는 것만큼은 정부가 인볼브를 해서 뭔가 가닥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있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코스트 베니핏이 어떻게 되고 또 주최와 정부가 하는 일은 어떤 건지, 역할분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clear)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하나 보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오늘 F1은 의제가 없어서 아마 아무도 안 나왔는데 하여간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 먼저 우리 최민수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노영민 위원 잠깐만…… 여기 요약보고서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그동안 아시안게임 등 종합대회와 세계 3대 메이저대회에 대해서만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노영민 위원 F1은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노영민 위원 그러니까 '대회에 대해서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노영민 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예, 맞습니다.

○노영민 위원 잘못 나온 것……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

○노영민 위원 바쁘시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노영민 위원 제가 보기에, 그동안 우리 유치지원에 관련한 법을 제정할 때 아마 종합대회라든지 세계 3대 메이저대회에 한해서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F1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원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F1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거의 메이저대회에 육박하는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특별법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노영민 위원 이 조정경기 있지 않습니까? 조정경기가 사실 일반 어떤 체급경기라든지 구기 이런 경기 같은 것하고 달리 거의 F1에 버금가는 그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타 종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정경기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큰 종목이지요, 메달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선진국들이 대부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주에서 유치해서 2013년인가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시종 의원께서 제의하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어차피 정부가 승인한 대회인데 그때까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지원 성격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설 준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을 통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때까지 시설 준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법의 형태로든, 개별법은 어려울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부의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대회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개별법에 따른 경기장 시설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라든지 절차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기간 내 시설 준공이 어렵다라는 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원 입법 방식이 지금 사례는 드물지만 충주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그 대회의 규모라든지 특성, 그리고 또 과거 이천몇 년부터 죽 대회를 보니까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충청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대회일 겁니다. 그런 어떤 지역 안배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런 입법 방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약간의 그런 예외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선수권대회 유치할 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나서서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들을 제가 다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다 하고 면담도 해 주고 정부 의지도 밝혀 주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분들이 실사 왔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법 내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지금 본부 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국제경기를 유치해서 정부가 승인하고 그 과정에 경기장 만들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하여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하면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F1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이런 경기하고는. 그래서 그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그때 F1도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황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29개의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했는데 그런 문제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좀 허가가 늦게 난다, 빨리 난다 이런 것으로 좀 과정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경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조정선수권대회만을 위한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한다면 아마 올해도 지금 28개의 종목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거의 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영민 위원 아니, 개별법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에 추가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일반법 안에.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쪽이고요.

○노영민 위원 아니, 특별법은 아니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지금 이렇게 3개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지원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노영민 위원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저는.

○노영민 위원 지금 제안된 법이 나온 게 그것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결국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특별법 안 만들고 일반법으로도 어떻게든지 이게 힘들지 않게 해 주면 좋겠다……

○노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법 형태로 국제경기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 검토 과제이고 현재는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사무총장님한테만 하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이러한 지원법의 형태로 기존에 있는 법에 추가하는 거지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나 개최가 어렵습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토론이나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유인촌 장관님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사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U대회조직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지난주에 FISU에 제출했고 현재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5000명 목표로 해서 자원봉사 인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어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대회는 아시다시피 광주하고 전남권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등 철저하게 친환경 대회로 치러질 예정이고 가능한 한 나라 예산을 적게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0개 정도 경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신설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이 2개밖에 신설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고쳐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U대회가 국가적인 모범 대회로 성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특히 황우여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회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광주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로는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58.7%인데 광주는 재정 자립도가 4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 여건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비록 이 대회가 광주라는 작은 광역시에서 개최가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자존심이 걸린 국제 행사이고 또 광주를 세계 속의 광주로 출발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충분한 국비와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운영 노하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기장 등 시설 용역과 대회 기반 구축사업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국비 지원에 대한, 그리고 황우여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인사에 갈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광주U대회는 제가 첫해에 가서 실패하는 경험도 했고요. 두 번째 다시 도전해서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 감안해서 예산을 덜 들이는 대회로 그렇게 꾸리겠다고 그때부터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특별법으로 다 묶여 있는 종합대회이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그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잘 맞춰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대학생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젊고 싱싱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경기장 건설이나 기타 2015년까지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

은 과거에 대구에서 U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2015년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벌써 다르고, 특히 광주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호남 소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좀더 이 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나라의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됐다고 그럴까요, 또 나라의 위상이 굉장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광주U대회는 과거의 대구대회와는 정말 다른 차원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회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은 문체부에서는 전혀 없애 버리고 정말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우리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경기가 있습니다. 국제경기가 아주 많지요. 그런데 그 국제경기의 연혁과 규모,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인원, 다시 말해서 지구촌에 끼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정부의 지원 체계가 다소 그 기준의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 내용도 보면 여기 일부 법안은 지원법으로 나가 있는가 하면 또 가령 광주U대회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국제경기의 성격이, 그만큼 정부가 보다 더 책임 있게 그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또 우리 국민의 관심과 국회의 관심도 표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U대회 문제가 제가 섬기는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먼저 도착했지만 발언 신청을 제가 앞서서 않고……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이 U대회 유치위원장이셨고 이제는 또 지원을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방금 정의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안 발의하는 데 여야 4당에 소속된 동료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숫자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U대회 지원법은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여당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여기 같이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른 국제경기 지원 기준의 특별법과 일반 지원법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의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U대회 그 당시에 개최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도 특별법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은 특별법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다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미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의 법안 속에, 일반 법안 속에 지금 이것을 넣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러 군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특별법으로 이미 묶여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로 법안도 다루어 주시고 정부 지원과 관심도 더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저는 장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도 보시기에 법이 너무 난삽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지금 현재 있는 법안으로도 충분히 지원은 다 가능하고 물론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실무자들 간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제대회 유치된 경우에는 정부가 공인하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간 다 준비를 할 생각

으로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모든 일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법안 만들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고 또 별로 알맹이 없는 법안들도 수두룩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해당 국제경기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은 특성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역시, 지금 여기에 지적이 좋은 게 나왔습니다마는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이것 문광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지난번…… 국제경기마다 사실은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늘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서 현재 의원실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 입법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명규 위원 문광위에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제경기에 대한……

○이명규 위원 예컨대 F1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유치 승인을 한 게 아니지요. 전남도청이 먼저 F1을 유치해 놓고 정부에다 대고 도와 달라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형식이 그렇습니다, F1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처음 과정이 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승인한 것, 승인하지 않은 것 또 어떤 대회까지 할 거냐, 지금도 세계선수권대회 이것 해 주면 종목마다 다 특별법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거냐, 그러면 내용을 뭘 할 거냐, 지금 여기 광주도 보니까 도로 놓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연계교통체계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일견 제목만 보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목만 봐도 대회 유치를 위해서 국가 연계교통체계 구축해야 될 판이니까 도로 놓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준다, 안 해 준다, 예측 가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게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승인을 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 무엇을 해 준다, 무엇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어야 돼요.

F1같이 지금 해 놓고,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무조건 한 번씩 17대, 18대 바뀔 때마다 점점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대회까지 해 준다 이런 것도 딱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해 주면 무엇까지 해 주느냐, 이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도로건설비 다 대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또 막연하게 도로건설비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야말로 힘의 논리에 따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인 정말 특성에 맞는 입법 이런 것도 좋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 제정 좀 문광부에서 관심 가지고 빨리 좀 시급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이명규 위원 사실 이런 법 만들고 지금 있는 특별법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법 제목도 내가 지금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고요. 그래서 우선 있는 경기에 해당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새로 앞으로 유치되는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일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해 달라고 막 우기면 뭐라고 할 겁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그게 통과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기본 법률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일반법은 문광위에서 지금 심의를 할 예정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각종 특별법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거나 기본법과 특별법 관계에서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기본법이 여기로 와서 하든가,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 입법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가 되면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심의가 서로 일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자리 이석 중이시니까, 그러면 이한성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위원입니다.

오늘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우리 지역구 문경에 유치하려는 국제군인종합체육대회, 속칭은 군인올림픽이라고 합니다마는 '올림픽'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민해서 이렇게 약간 다소 좀 명칭을 격하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경의 국제군인종합체육대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25 발발 60주년이 되고 또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으로 정말 젊은 장병 46명이 머나먼…… 그런 청춘을 다 희생시키고 조국을 위해서 사망해서 얼마 전까지 열기가 뜨거웠던 월드컵 응원 열기에도 참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뒤덮은 젊은 청년들이 월드컵 열기에, 그 흥분의 도가니에 같이 휘말렸을 때 천안함에서 폭침으로 순국한 젊은 장병들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나라에 한 번도 도발하거나 도전해 보지 않은 정말 참 평화로운 군대 아닙니까?

60년 전에 공산군의 불법 침략을 받고도 평화적으로 격퇴를 시키고, 유엔의 힘을 받아서 격퇴를 시키고 그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군도 현대화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역시 또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좋은 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6·25 발발 6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나라에서 그때 그 기억을 하면서 나라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참전용사들이 감격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응원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참전국의 하나였던 터키국에서도 한국의 국제군인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이런 의사를 밝힐 만큼, 올해는 6·25 발발 60주년을 새기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 국방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또 국제군인종합체육대회 사무기구(CISM) 여기에서도 총회를 내년도에 서울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총회에서 손님 관리만 잘한다면 거의 결정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쉽게도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시기가 우리가 한두 달 앞서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나서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장 받을까 싶어서 우리가 내년 CISM 총회 개최를 한 석 달 연기하면 어떠냐 이렇게 기구에다가 간청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고유 일정이 다 잡혀 있고 또 총회 의장 임기하고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일정 변경이 어렵다, 우리는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도 너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담당 회의가 있지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여기에 유치 승인을 신청하면 이것도 좀 전향적인 검토를, 의견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대회는 소중하고 어느 대회는 소중하지 않다 이것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가 여러 가지로 참 의미 깊은 이런 해일수록,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국군의 잘못도 있었습니다마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그러나 젊은 장병들이 조국을 위해서 사망하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 대응 폭격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국민적 여론을 통합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받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절대로 도발적인 그런 군사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

런 한국군의 또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국제군인종합체육대회 유치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문광부장관 오셨는데 좀더 높은 관심을 올리려는 분위기와 국군 사기 양양, 국제평화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잔뜩 뜻을 펴고 있다가 사임을, 약간 다음으로 미루는 분위기고 다른 우방국이 다 지지하는 분위기라 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게 또 대륙 간 안배 때문에 한 12년 흘러가게 되고 그때는 또 어떻게 흐를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평창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매우 소중한 기회다, 시설도 지금 2011년 완공한 아주 깨끗한 시설로, 갓 준공한 그런 깨끗한 시설을 활용해서 최저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의견은 아니고요. 물론 문경에, 상무부대가 거기로 옮기고 새로운 체육시설이 거의 다 개선이 되고 잘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동계올림픽 자체가…… 제가 지난번 밴쿠버 갔을 때 IOC위원 많은 분들 또 국제 체육계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이 너무 많은 국제대회를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현지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동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더 이상의 국제대회 유치를 선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사실은 열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장관님,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이제 단독 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다 바뀌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단독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강원도지사와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쌍두마차에서 단독 체제로 전환하면서 강원도 사람들은 '이거 너무 우리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곳은 강원도인데' 그런 소외감 같은 것 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좀더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 유치위원회에서 그 배경 설명이라든가 또 절대 우리 중앙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이다 그런 홍보를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나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치 올림픽은 포기하고 월드컵만 신경 쓴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라든가 홍보가 도민들한테 생생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항의도 하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단독 체제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두 번의 실패가,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시킨 것이고, 강화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관심을 더 가져라'라는 질책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차관이 강원도의 실제 그 언론사하고는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우리 강원도민들이 원래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항상 그런 소외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림픽 문제를 떠나서. 또 지난 두 번을 실패할 때도 강원도는 열심히 뛰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겠다, 또 우리 장관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탕발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소위 말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

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 또 대통령의 그런 유치 의지를 여러 번 피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권성동 위원 그리고 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유치위원회 내부의 불협화음이 제 귀에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야 해외활동을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그 유치위원회 조직 자체를 추스르고 또 역량을 결집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사무총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치위원회가 지금 여러 개 조직에서 파견 나와서 구성이 돼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조직을 하나로 묶고 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총장님의 좀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정할 때까지. 그래서 서로가 단합해서 한길로 가도 지금 유치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태인데 자꾸만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의 분발을 제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다소 초기에 좀 서로 이질적인 조직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일부분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의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생각 또 도라서 행정조직에서 온 분들의 행정력이 지금은 잘 접목이 되어 가지고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유치할 때……

○권성동 위원 좋아졌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던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제가 5월 1일 날 왔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권성동 위원 좀더 노력을 해 줘서 더 이상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아까 국제경기 지원에 관한 단일법 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국제경기지원특위 첫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 계속해서 자꾸만 비교하면서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힘 있는 정치인 또 힘 있는 중앙정부에 그 지역 출신 인사가 있으면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경기의 어떤 그레이드(grade) 또 세계적인 영향력 또 국민의 호응도 또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 상황,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아주 법대로 딱 지원할 수 있게끔, 무슨 대회 누가 로비를 하든 로비를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래서 그 범위나 한계를 잘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국제경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피력하신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관심이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평창을 방문하여 경기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며 현지 사정을 들어 보겠습니다. 방문일자 등 세부적 사항은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그리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성동	김영진	노영민	박병석
윤상일	이명규	이시종	이종구
이한성	장윤석	정의화	조전혁
최문순	황우여		

○출장 위원(1인)

이용경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민수
전문위원	임중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부위원장	문동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공동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사무총장	배종신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노영민	민주당	2010.6.11
전혜숙	최문순	민주당	2010.6.22